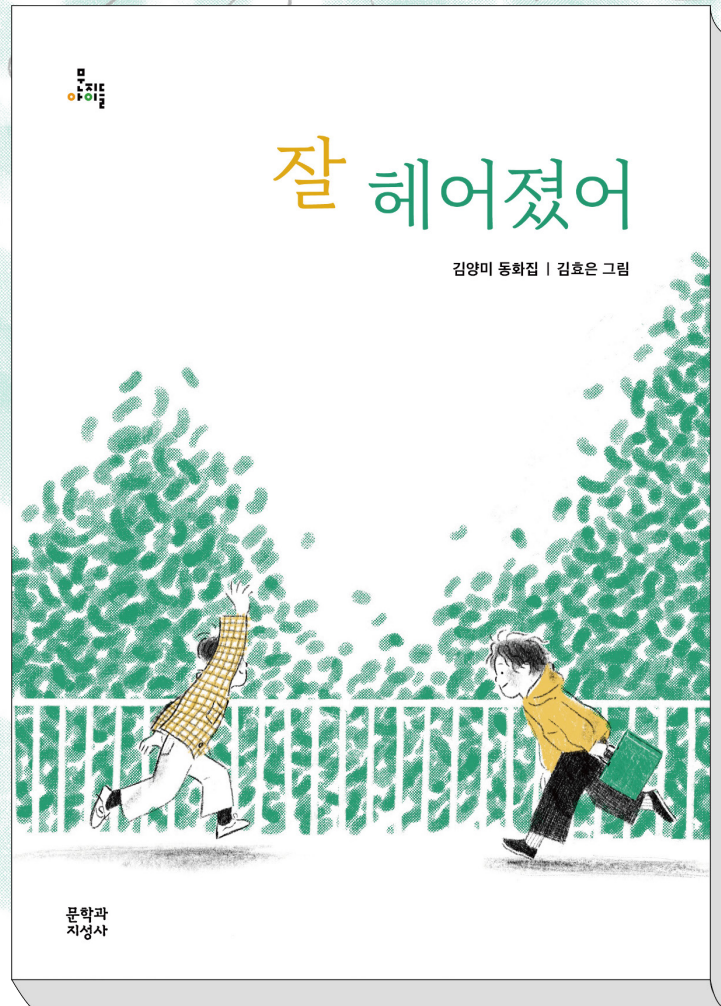


잘 헤어졌어 (학생용)

김양미 동화집 | 김효은 그림



‘잘’ 헤어지고 ‘잘’ 성장하는
다섯 아이들의 이야기

#우정 #친구 #만남과헤어짐 #성숙한이별 #성장 #치유 #학교 #가족



책소개

‘이별’을 주제로 묶은 다섯 편의 이야기, ‘잘’ 헤어지고 ‘잘’ 성장하는 다섯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별, 헤어짐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먼저 부정적이거나 슬픈 감정을 떠올리지만 『잘 헤어졌어』에서 보여 주는 이별은 ‘건강한’ 이별입니다.

날마다 누군가와 무언가와 이별하는 아이들.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시간을 함께했던 물건과의 헤어짐에도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각자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듯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맞이하는 아이들의 시간은 저마다 다르게 흐르는데요. 헤어짐 앞에 슬픔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이별을 잘 맞이한 아이들은 자신은 물론 새로운 만남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싸웠다가도 금세 화해하게 되는 친구,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는 물건 등을 통해 작품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습니다. 섬세하고 밀도 높은 문장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잘 헤어졌어』를 읽으며 이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잘 헤어졌어

- 글 : 김양미
- 그림 : 김효은
-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 분량 : 200쪽
-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연계

초등학교 5학년

국어 5-1 1. 대화와 공감
 국어 5-1 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국어 5-1 10. 주인공이 되어
 국어 5-2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국어 5-2 4. 겪은 일을 써요
 실과 5~6 인간발달과 가족(나와 가족의 관계)

초등학교 6학년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국어 6-1 9.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도덕 6-1 3. 나를 돌아보는 생활

내 친구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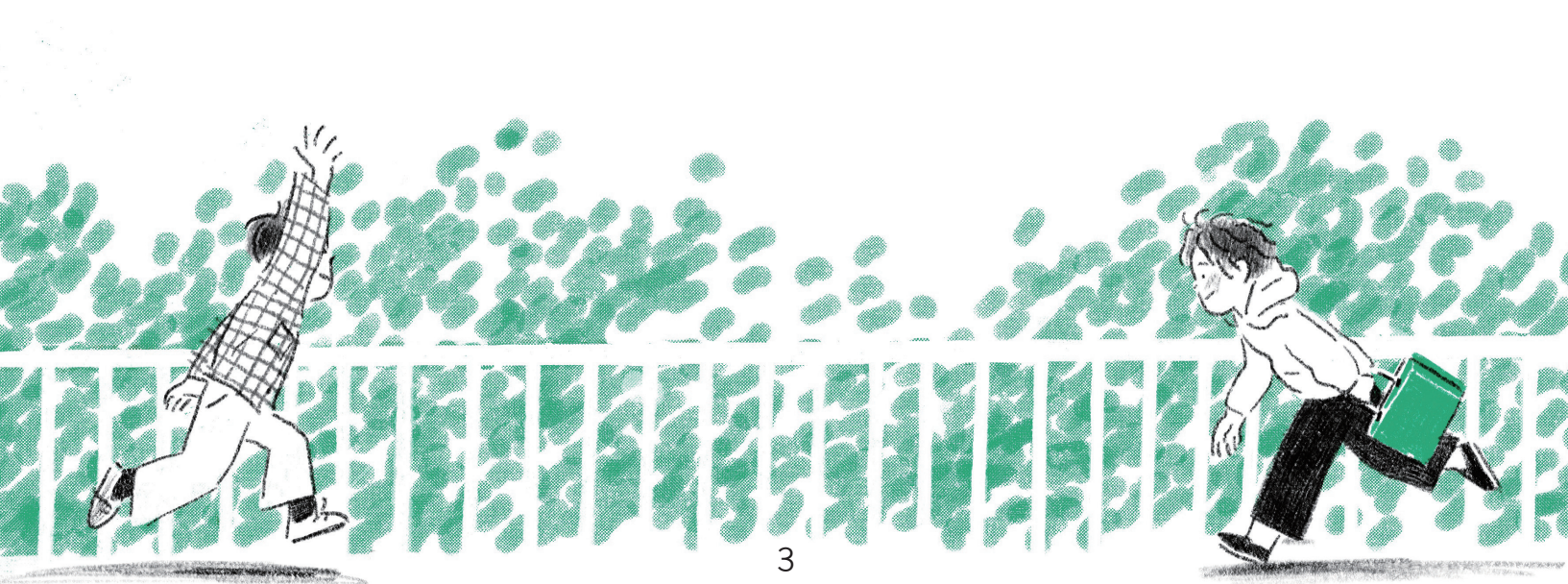
1. 석찬이와 건오가 자주 만나는 숲의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2. 건오와 석찬이는 서로에게 이별 선물로 무엇을 주었나요?

건오는 석찬에게

석찬이는 건오에게

3. 내 친구의 눈을 읽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통과

1. 할머니께서 "그럴 수도 있지, 통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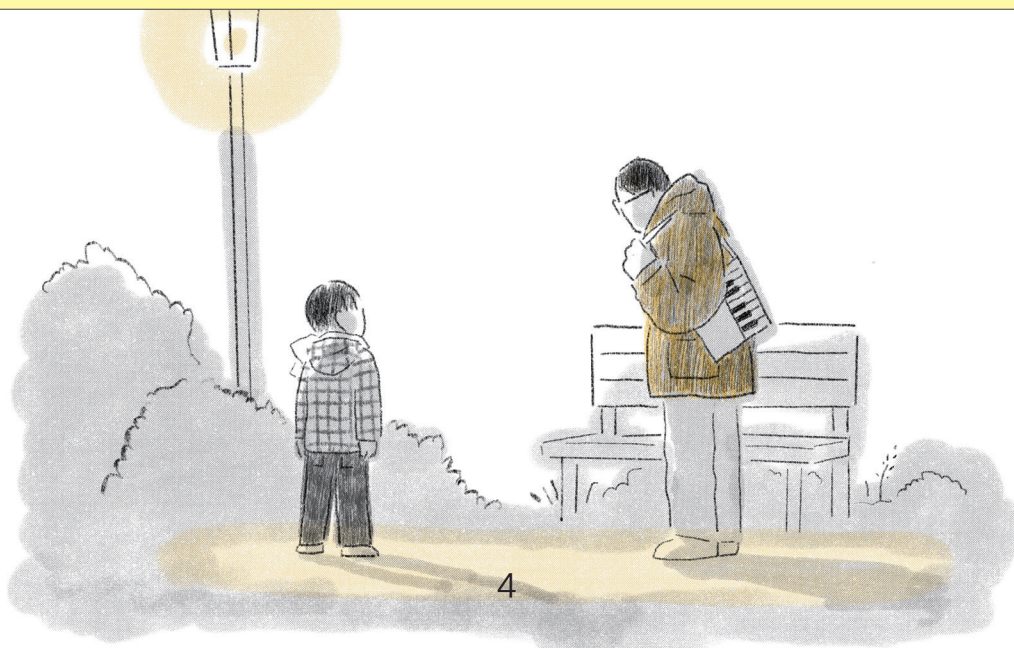
2. 안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 보세요.

나는 거짓말이 점점 늘고 있다 아니, 할머니와 하는 에서 연기를 점점 잘하고 있다. 할머니는 할머니 역할을 맡았고, 나는 손자 역할을 맡았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속 할머니는 편찮으시기 전처럼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하신다. 떡을 하고, 그 떡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시장 가서 천을 사고 그 천으로 커튼을 만드신다.

3. 아래의 문장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나는 이제 1년 전에 할머니와 헤어졌다는 걸 안다.
13년 전에 내가 태어났고, 12년 전부터 혼자서 걷게 되고, 올해 초에 중학생이 된 것처럼
나는 1년 전에 내가 13년 동안 알아 왔던 할머니와 헤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할머니와 새로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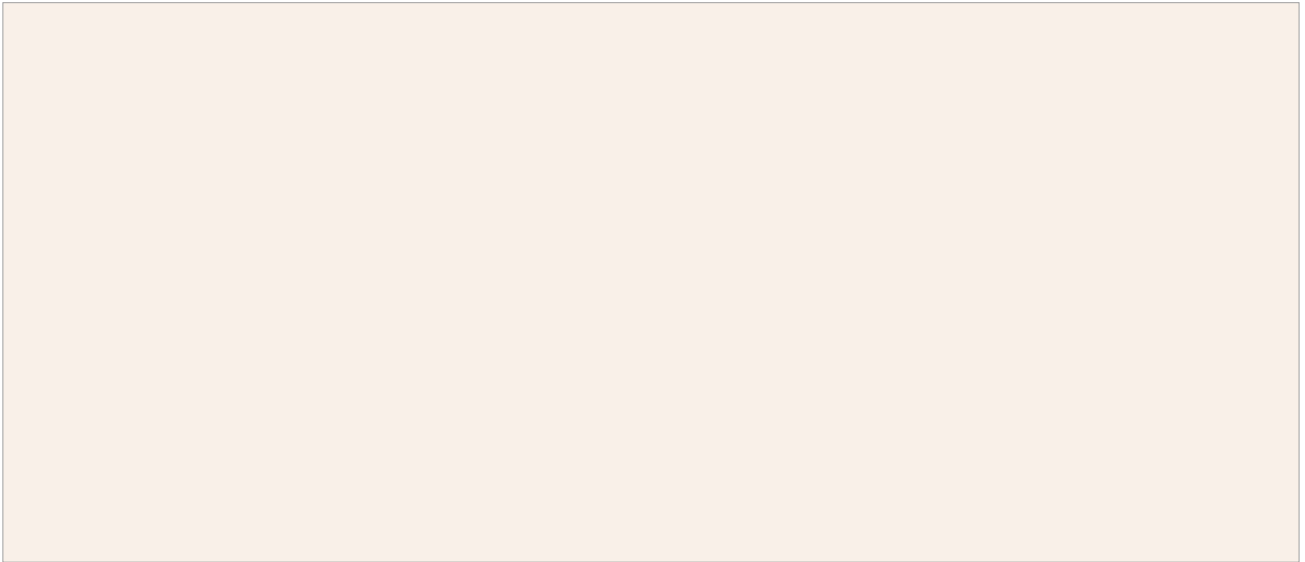


누가 토요일을 훔쳐 갔다

1. 도둑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은 누구를 불렀을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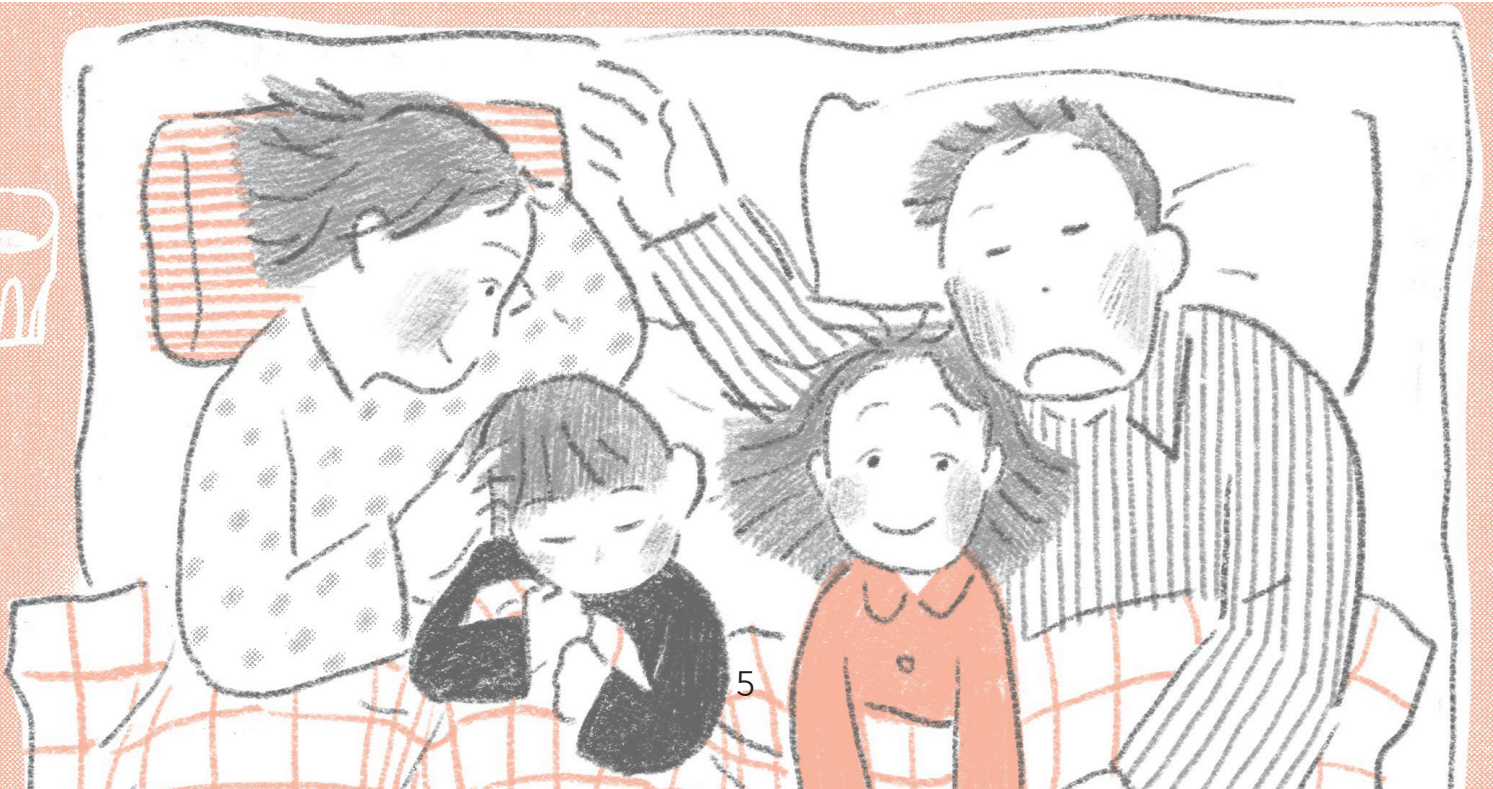
- ① 형사 ② 경찰 ③ 수사대 ④ 119차 ⑤ 열쇠 수리공

2. 윤주는 나쁜 도둑에게 조금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3. 도둑은 윤주네에서 무엇을 훔쳐 갔을까요? ()

- ① 아빠의 카메라 ② 금거북 ③ 엄마의 반지 ④ 망원 렌즈 ⑤ 아이들의 레고



잘 헤어졌어

1. 아진이와 민채가 헤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낯설게 느껴지던 일이 있었나요?
아진이와 민채처럼 서먹해진 친구에게 편지를 적어 보세요.

3. 잘 헤어졌어 뒷 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상태 씨와 이사

1. 제목이 '상태 씨와 이사'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2. 가족 모두 이사에 들떠 있을때 서하는 정든 집을 왜 떠나기 싫어했을까?

3. 서하가 낡은 하얀 의자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적어 보세요.





문지아이들은 1999년 첫걸음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각에 맞는 양질의 아동도서를 활발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문학성 높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드넓은 상상의 세계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해송문학상'을 제정하고 역량 있는 동화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지성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온기를 더해 줄
알찬 책들을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문지아이들 신간 소식

문학과 지성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18 전화 02-338-7224
팩스 02-338-7221 홈페이지 <http://moonji.com>